

News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코로나 초저금리 15개월 만에 마감

서울경제

한국은행 금통위, 코로나 4차 확산에도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0.75%로 인상 결정... 초저금리 시대 1년 3개월 만에 종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더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 반면 코로나 4차 유행으로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

'DLF 사태'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소송, 오늘 1심 선고

뉴스1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결론 나와... 법원이 논리 다듬을 시간 필요해 선고기일을 20일에 연기
금감원과 우리금융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을 통해 금융회사 CEO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지 공방벌여... 우리금융, 경영진까지 제재는 법적 근거 부족 주장

NH농협지주, 상반기 역대 최대 순이익... 중간 배당 결정

머니S

NH농협금융지주, 3330억원 규모의 중간 배당 의결... 지난해 연간 순이익의 19.2%로 농협중앙회 대상으로 배당
금융당국, 6월 말 배당순이익 20% 제한 권고했으나, 권고기한이 종료되고 상반기 실적 및 자본 비율 양호로 이와 같은 중간 배당 결정한 것으로 보임

'머지 사태' 금융권 확산 우려에... 은행 "제휴사 검증만 6개월"

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이종 분야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각종 신규 사업에 나섬에 따라,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일각의 우려 존재...
은행권, '과도한 우려' 입장... 통상 은행들이 이종 분야 기업과의 제휴를 6개월~1년 이상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검증을 충분히 한 후 신규 사업 진행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 보험사 주담대 금리 더 뵈다

머니S

주요 보험사들, 9월 이후 주담대보대출 금리 인상폭 관련 논의 중...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언급... 보험사 주담대 금리 상승 국면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금리 자체가 높아져... 일부 보험사는 2분기 들어 우대금리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

심장 검사비 인하 '코앞'...손보사들 영업 나섰다

보험매일

보건복지부, 내달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소비자의 심장 검사 비용 부담 감소 예정... 보험사들은 마케팅에 활용
심장질환은 국민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은 질병... 생보사 입장에서 종신보험 소비자 니즈 감소 추세에서 보장성보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증권사 우발부채 감소 국면... 'PF 규제 통했다'

아이뉴스

국내 증권사 상위 8곳의 우발부채, 1분기 말 기준 25조 9,2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10% 감소
앞서 금융위가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확정으로 증권사들의 우발부채 제한... 선제적으로 우발부채 규모 감축... 관련 딜 연말 클로징 영향도 존재

KB증권, 印尼 증권사 사들여 현지 톱5 육성

매일경제

대형 증권사들 해외 진출을 통해 투자은행 업무 영역 확대 추진... KB증권, 인도네시아 증권업계 진출을 통해 동남아 점유율 확대 예정
국내 5개 대형증권사 상반기 해외 법인 순이익 2,053억원... 지난해 수익의 77% 달성... 미래에셋증권은 올 상반기 해외법인 수익 1,807억원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